

시민의 신문 600호 발행 축하 메시지

시민의 신문 지령 600호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임직원과 애독자, 그리고 시민단체 여러분께 따뜻한 인사를 전합니다.

시민의 신문은 참여민주주의와 인권신장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기획 보도와 칼럼은 시민운동의 생생한 현장을 전달하면서 사회적 의제 설정의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2002년 봄 여러분이 주최한 초청토론회에 참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는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정착되면 비판적 참여에서 창조적이고 대안적인 참여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 시민사회가 이러한 시대를 여는 데 앞장서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시민사회는 정부, 기업, 언론과 함께 국정을 이끌어 가는 핵심적인 주체입니다. 시민사회의 도덕성과 열정, 전문성은 우리 사회의 수준을 한층 높이고 혁신을 촉진하는 큰 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민의 신문은 우리 사회의 큰 자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비판은 물론 적극적인 대안 제시로 우리 사회의 희망을 만들어 가는

주역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지령 600호를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